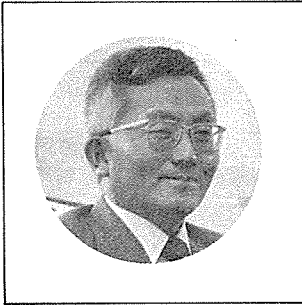


年號 이야기



朴 星 來

〈韓國外國語大교수·科學史〉

시간이란 무엇일까? 내가 존재하는 한 시간은 흐르고 사건은 앞과 뒤의 순서를 가지고 벌어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사건의 앞뒤를 결정해주는 것이 시간 아니고 무엇일까 생각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건을 지각하는 내가 없다면 시간은 그래도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시간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보자면 시간이란 내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똑같이 느끼는 것이고, 그러기에 시간을 재는 방법도 비슷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발달해 왔다. 시간의 흐름을 재는 기준으로 인류는 아주 태고 짝부터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썼다.

하루 이틀 하는 날자의 길이는 해의 운동을 기준으로 생겼고, 한달 두달 하는 단위는 달의 움직임을 표준삼았다는 것을 “달”이란 말에서 벌써 알아차릴 수 있다. 한해 두해 또는 1년 2년등의 단위는 다시 해의 운동이 기준이란 것도 뻔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재는 방법은 어떨까? 하루 동안의 시간을 시, 분, 초로 나누어 측정하고, 또 년 월 일을 정해서 쓰는 일은 공통적이라 하겠지만, 1년보다 더 긴 시간을 사람들은 어떻게 표시해 왔을까?

이렇게 긴 시간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꼭 과학적 방법이란 있을 수 없다. 자연히 민족에 따라, 그리고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이 사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금년을 1989년이라 한다.

세계의 많은 나라가 이와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다. 그렇지만 불과 1세기만 거슬러 올라가도 사정은 그렇지가 않았다. 인류는 극히 최근 까지도 서로 크게 다른 紀年法을 써 오다가 최근에서야 西紀로 통일되고 있다할 것이다.

물론 아직도 자기들 나름의 독특한 年號등을 쓰고 있는 민족이 없지 않다. 지난 1월 7일 일본 각의는 새로 연호를 ‘헤이세이’(平成)라 정하고 이를 1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전까지 쓰던 ‘쇼와’(昭和)란 연호는 일본왕 히로히토(裕仁)의 죽음과 함께 끝나고 그의 아들 아키히토(明仁)의 시대가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일본이 연호를 쓰기 시작한 것은 645년의 일이었다. 그 때 다이카(大化)란 연호를 처음 쓰면서 중국의 문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역사 책에는 기록돼 있다. 그 후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연호가 끊임없이 사용되어 왔다. 연호 못지 않게 일본 천왕의 전통도 그보다

오래 계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들에게 천왕제가 어느 정도 국민적 구심점으로 작용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천왕 폐하 만세”를 외치며 아시아 정복을 꿈꾸며 2차대전을 벌인 일도 있지만, 또 패전 뒤에도 왕 중심으로 나라의 통일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얻게된 것도 분명하다. 일본 점령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장군이 천왕제도를 교묘하게 활용한 것도 사실이고……

이런 연고로 일본은 여전히 그들만의 시간제는 방법인 연호를 쓰고 있다. 비록 그들도 모든 공식적인 일에 1989년이란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당분간 고유의 연호는 사용될 것이 확실하다. 히로히토의 병이 위독한 상태를 계속한채 해를 넘기자 일본 사람들은 달력을 찍지 못했고, 그 밖의 모든 공문서등을 인쇄하지 못하고 있었다.

왕이 죽고 새 왕이 즉위하면 연호가 바뀔텐데 새 연호를 인쇄물에 넣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새 연호가 정해지자 일본은 갑자기 인쇄 붐이 일어났다. 달력도 마구 찍기 시작했고, 그 밖의 다른 문서들이 인쇄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종이 장사와 인쇄소에 붙이날 정도로 일감이 밀렸고, 덩달아 일본의 경기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았다고도 전해졌다.

독자적인 年號를 쓰는 국가도 상당수

지금 세계에서 자기들만의 독자적 연호를 쓰는 민족은 일본인만은 아니다. 대만사람들도 그들 나름의 기년법을 쓰고 있다. 올해는 民國 78년으로 계산한다. 내년에는 민국 79년이 될 것이고… ‘민국’이란 기년법은 전통적인 연호와는 달리 생긴 방법이다.

1911년 辛亥혁명으로 중국 사람들은 淸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세워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들은 孫文이 중심되어 세운 새공화국이 전통적인 제국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 썼던 연호를 그만두고 1912년을 “민국 1년”으로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대

륙을 차지한 중국에서는 연호를 버리고 민국이란 기년법도 쓰지 않고 서기를 “公元”이란 말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연호가 처음 시작되기는 B. C. 140년인 한나라 武帝때의 일로 되어 있다. 그 때 이래 중국에는 1911년까지 여러 가지 연호가 제정되어 사용되었고 때로는 분열된 국가들이 각각 서로 다른 연호를 동시에 사용한 일도 많다. 지금은 일본만 연호를 쓰고 있지만, 그들은 중국 흉내를 내어 645년에 처음 연호를 만든 것이어서 중국 보다는 8세기나 뒤져서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연호라는 시간을 표시하는 방법은 중국 문화의 영향 속에서 발달한 동아시아의 고유한 전통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중국의 영향 아래 연호를 사용한 일이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사용한 永樂이란 연호는 391년을 원년으로 하고 있어서 일본보다 2세기만 앞선 연호 사용을 보여 준다. 백제가 쓴 연호도 한 가지 알려져 있고, 신라의 연호로는 적어도 8가지가 기록에 남아있다.

그 뒤에도 궁예는 4개의 연호를 썼고, 고려 초에도 몇 가지 연호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연호는 전혀 사용되지 않다가 개화기에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하면서 비로소 1896년 建陽이란 연호를 시작으로 1897년에 光武, 1907년 隆熙를 쓴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러면 한국 역사에서는 연호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많은 국사학자들은 한국사에는 대개의 기록이 중국의 연호로 적혀있다는 사실을 속으로 꽤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일이 많다. 대개 역사가들은 우리 역사에서의 연호 이야기를 피하는 수가 많고, 혹시 어찌다가 말할 때는 사대주의의 표현이라 쉽게 규정하고 지나가는 것이다.

정말 우리 선조들은 중국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연호를 따로 정하지 않고 중국것을 그대로 빌려 썼던 걸까? 적어도 고려 초까지의 연호 사용에 얽힌 뒷 사건을 훑어 보면 우리 선조들이 중국을 섬기기 위해 연호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

원래 연호는 曆法 즉, 달력과 천문계산법과 깊은 관련속에 발달한 것이다. 역법은 지금의 달력 보다 훨씬 중요한 것으로 일식과 월식은 물론 일체의 천체운동을 미리 계산하는 기술을 가리켰다. 삼국 시대에는 아직 독립적으로 역법을 계산할 실력을 갖지 못했던 삼국인들은 중국으로부터 역법을 얻지 못했을 경우 그전의 역법을 적당히 고쳐 쓰면서 그해의 연호는 독립적으로 만들어 썼던 것 같다.

원래 연호는 역법과 깊은 관련속에 발달

중국에서 역법을 새로 얻어 오면 연호는 다시 중국의 그것을 썼으며 그 때까지의 고유 연호를 폐기해 버렸다. 이런 일은 고려초에 더욱 뚜렷했는데 중국이 통일되지 않은 채 혼란하여 어느 한 나라로부터도 제대로 역법을 얻어 오기 어려울 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으로부터 역법을 얻어 오지 못했기 때문에 고유의 연호를 만들어 쓰는 버릇은 고려가 조선으로 바뀌던 초기에도 나타났다. <동문선>에 들어 있는 權近의 글을 보면 1401년을 蒼龍, 辛巳라 표기한 것이 있다.

이 때는 아직 명나라에서 역법을 얻어 오지 못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명의 연호를 쓰지 않고 “창룡” 즉 “푸른 용”이란 말로 우리나라를 가리키고 그냥 신사년이라 나타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때를 전후하여 조선의 학자들은 여러 글에 “창룡”이란 표현을 썼는데 만약 중국을 존중하는 마음이 사모쳐 중국 연호를 쓴 것이라면, 그냥 명 나라 연호를 쓰면 될 것을 왜 “창룡”이란 표현을 연호 대신 썼겠는가 말이다.

우리는 중국과 가까워 그 역법을 쉽게 얻어 쓰게 되었고, 그 때문에 독자적인 연호를 필요로 하지 않은 셈이지만, 일본은 중국과의 교통이 불편하여 그 역법을 얻어 가는 일이 드물었다. 자연히 일본인들은 긴 시간을 표시하는데 중국 연호를 쓰지 못하고 그들 나름의 연호를

만들어 사용했던 것이다. 역법도 그들 나름의 것을 만들어 사용했고, 그것은 우리 것보다 부정확했던 그런 것이었다.

연호가 나오기 전에는 동양에서는 주로 긴 시간을 “어느 임금××년”하는 식으로 나타냈다. 중국의 역사 고전 <춘추>가 그런 투로 기록되어 있고, 사실은 우리의 <삼국사기>도 비슷한 방식인 셈이다. 개인의 일생을 나타내는데 나이가 쓰이는 것처럼 역사를 표시하는데 임금의 임금된 해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긴 시간을 표시하는 방법은 역사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났고, 어느 의미에서는 어느 것이 더 좋다는 기준도 없다. 고대 로마는 개국 기원을 썼고, 그리이스는 올림픽기원을 쓰기도 했다. 이슬람 세계는 지금도 마호메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겨간 것을 기준삼아 “헤지라 기원”을 쓰고, 불교에는 그들 나름의 “불기”가 있다. 우리도 한때는 우리 고유의 기원을 만들어 쓴 일이 있다.

<동국통감>기록을 기준으로 단군의 즉위년을 원년 삼아 단기를 우리의 공식기원으로 정한 것은 1948년 8월 15일 건국과 함께였다. 1961년 군사 쿠데타 이후 1962년 단기는 폐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어서 금년이 단기 4322년인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어느 해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우리는 금년을 이렇게 또는 저렇게 부를 수 있다. 어느 쪽이 더 과학적이란 근거도 없다. 이제 세계는 편의상 “서력 기원”을 쓰게 되어 버렸다. 세계 어디를 가나 올해가 1989년인 줄은 다 알게 되어 버린 것이다.

원래 서기는 6세기의 어느 신학자가 그리스도의 탄생년을 기준으로 삼아 만든 기원인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탄생년이 몇 년 잘못 계산된 것이 지금 기원후(A.D)와 기원전(그리스도 이전, B.C)의 기준이 되어 버렸다.

이제 세계 공통의 기원이 되어 있는 이상 그걸 우리는 더 이상 “서기”라 부르는 것은 마땅치 않은 일이다.